

‘안 자고 안 사먹고’... 순천정원박람회 ‘낙수효과’ 없네

관람객 87% “숙박계획 없다”... 절반이 “식사는 자체 해결”

개막 26일만에 100만명 돌파 등 초반 흥행 불구 영향 미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26일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초반 흥행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객 10명중 9명 가까이 순천에서 숙박하지 않고 절반 가량은 음식도 사먹지 않고 가져가기 때문이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의지에서 방문한 관람객 2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교통여건 및 주차장 등 만족도가 높았으나 숙박계획 및 경험은 87.1%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12.9%만이 숙박 경험 및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6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30~50대 16~18%, 20대 1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23.8%, 광주 12.8%, 경남 12.8%, 전북 12.3% 등 순천과 가까운 지역의

방문자가 많았다.

동반유형은 2~5명 가족단위와 10명~100명의 단체관광 형태가 66.7%로 가장 많았고 순천지역 체류시간은 4~6시간으로, 박람회장 체류시간은 2~4시간이 많았다.

박람회 관람 후 행사지에 대해서는 귀가 59.1%, 순천시내 27.1%, 인근 시군 13.8% 순이었고, 자가용 42.9%, 관광·전세버스 39.5%, 고속·시외버스 10.5%, 기타 6.7% 순이었다.

숙박계획이 있는 관람객중 숙박 선호형태는 민박·펜션, 모텔, 호텔 순으로 저렴한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순천시내 51.8%, 인근 시군 48.2%로 나타났다.

주요 관광지 선호도는 순천만 28.1%, 낙안읍성 16.2%, 드라마촬영장 7%, 선암사 5.3%, 송광사 4.4% 순으로 순천만이 단연 높았다.

또 식사 장소는 자체해결 40%, 박람회장 밖 32.9%, 박람회장내 20%, 식사안함 7.1% 순이었으며, 시내에서 식사한 이유는 맛집 54.2%, 회장내 자리부족 9.4%, 여행사 또는 버스기사 권유 14%, 주변사람 추천 14%, 기타 8.4%였다.

정원박람회의 행사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2.9%, 불만족 8.1%, 보통 46.7%, 만족 33.3%, 매우만족 9.0%로 응답했다.

주차·셔틀버스·교통 분야는 만족 이상이라는 응답이 52.9%였다. 그러나 전시행사 시설, 음식점, 편의시설은 타 조사 분야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조사대상 표본수가 적고, 시 공무원이 직접 조사 및 분석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음식·숙박·교통·주요 관광지 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의 일환으로 조사한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완도수목원의 숲 유치원 현장체험 장면.

자연과 함께하는 ‘숲 유치원’

아이들 창의력·상상력 ‘쑥쑥’

전남도, 어린이집 등 1000여곳 체험프로그램 제공

전남도는 유아들의 창의적 정서 발달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오감만족 체험 활동 위주의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 유치원은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숲 유치원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알려졌다. 도시 환경에서 벗어나 숲에서 다양한 생태체험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이다.

일반 유아보다 창의력과 상상력, 운동력과 학습참여도 및 면역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참여 문의가 매년 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 지난 2010년부터 숲 유치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지난해 도내 22개 전 시군에서 운영해 3만 8952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이는 전년 대비 99.7%나 늘어난 것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이다.

올해는 숲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과 체험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내 수목원, 자연휴양림, 우드랜드, 산림욕장 등 22개 전 시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1000여 개소의 어린이 5만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숲에서 놀면서 배우고 자연과 교감하며 친구와 소통하는 등 숲체험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

침이다. 매주 1회 정기 또는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다양하게 운영하며 산림욕이나 풍욕 등 숲속에서 느끼는 정신적·육체적 치유기능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숲과 나무 및 곤충과 야생동물 등 자연 탐구력과 모험심을 자극하고 창의력 증진을 위해 자연을 소재로 한 다양한 놀이가 진행된다.

전남도는 또 유아 신체적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 전문교육 및 학부모를 위한 연수과정을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세미나를 하반기에 개최해 지속가능한 숲생태·체험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제정된 것을 계기로 다수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 숲체험지도사를 채용한 유아 숲체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예정이다.

박희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도내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많은 유아들이 신체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수련활동 등 학교교육과 연계해 건강·인성교육을 실시해 정서도 순화시키고 산림·환경 보전의 중요성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섬진강변 자전거타기 성료

‘2013 군민 건강 자전거타기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난 15일 섬진강변을 달리고 있다.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통해마을까지 구간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이 참가했다. <구례군청 제공>

규정 까다로운 ‘무안군민의 상’

‘1억 이상 사재투입 지역발전 공헌’ 등 선정 기준

2010년 이후 수상자 없어... “취지 무색” 비난 여론

무안군이 4년째 군민의 상 수상자를 내지 못하면서 까다로운 규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매년 5월 초 ‘군민의 날’에 해왔던 군민의 상 수상자를 지난 2010년 이후 4년째 배출하지 못했다. 올해는 교육문화 부문에서 후보 1명이 추천됐지만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2011년에는 지역개발부문에서 한 명이 추천됐지만 1억원 이상 사재를 투입해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걸렸다. 이처럼 수년째 수상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군민 자긍심 제고와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다는 군민의 상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무안군은 1982년 안진규(지역사회 개발 부문)씨가 선정된 후 지금까지 지역개발 14명, 교육문화 4명, 체육 5명 등 모두 23명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했다. 2009년에는 지역개발 2명, 교육문화와 체육 각 1명 등 한해에 4명이 수상하기도 했다.

무안군은 사재(1억원) 내거나 훈포장 수상, 대통령 표창, 인간문화재 지정, 10명 이상 학생에게 6년간 장학금 지급,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 준우승 이상 등 각 부문에서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군민의 상을 운영하고 있는 인접 시군과 영암군 등은 기준에 금전적 조항이나 훈포장 등 까다로운 규정이 없는 점과 비교가 되고 있다.

주만 이모(무안읍)씨는 “1억원 이상 사재 출연 등 금전적 조항 등은 시대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것”이라며 “봉사와 헌신적 군민에게 상이 돌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전통 모내기 체험해 보세요”

전남도농업박물관, 벼 한살이 생태관찰학습장서

전남도농업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벼 한살이 생태관찰학습장에서 초·중·고 학생 및 동반가족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를 연다.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는 옛 방식에 따라 만든 못자리에서 자란 모를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손으로 썬 채 못줄을 띄우면서 전통 방식대로 모를 심는 프로그램이다.

또 행사 참가자들이 못자리에 서 자란 모를 손으로 직접 찌

푸라기를 이용해 ‘모춤’을 만들고, 이를 지게에 쳐 썰레질이 끝난 논으로 옮긴 다음 못줄을 띄워 가며 모를 한 줄 한 줄 심는다.

모내기가 끝난 뒤 참가자 전원에게 못밥(설렁탕)과 농주 등 옛 농부들이 협동노동 후 들녘에 움기종이 모여앉아 나눠먹던 먹을거리 체험도 곁들여진다.

참가 신청은 24일까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초·중·고 학생 및 동반가족 약 200여 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문의 061-462-279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 시공 전 / 단열베이스시트시공 2 단열베이스시트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판시트 시공 4 시공 후

특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여성가족부 인정

2013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강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으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목표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및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